

# 2003년도 폐기물관리 정책 방향



윤 승 준  
환경부 폐기물관리정책과장

<필자약력>

- 81. 2: 한양대 기계공학
- 83. 2: 한양대 기계공학 석사
- 90. 6: 미 일리노이대 석사
- 83. 6: 대기제도과
- 92.8~93.8: 지구환경과, 평가제도과
- 93.8~00.8: 기술지원과장, OECD 파견, 지구환경과장
- 01. 4: 지구환경과장
- 01. 9: 정책총괄과장
- 02. 8: 폐기물정책과장

<생활폐기물 발생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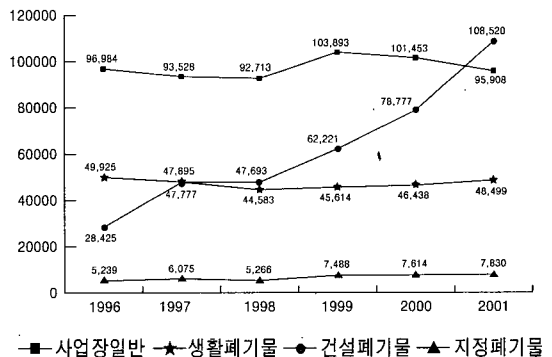
연도별	발생량(톤/일)	전년대비(%)	1인당 1일 발생량(kg)
'96	49,925	4.5	1.1
'97	47,895	△4.1	1.05
'98	44,583	△6.9	0.96
'99	45,614	2.3	0.97
'00	46,438	1.8	0.98
'01	48,499	4.4	1.01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구 분	계	사업장일반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96	130,648	96,984	28,425	5,239
'97	147,380	93,528	47,777	6,075
'98	145,672	92,713	47,693	5,266
'99	173,602	103,893	62,221	7,488
'00	187,844	101,453	78,777	7,614
'01	212,258	95,908	108,520	7,830

## 1. 우리나라의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01년에 일반 가정과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총량은 약 9,518만톤(261천톤/일)으로, IMF 관리체제 하에서 경제활동과 소비가 위축되어 1997년에 비해 2.57%가 감소했던 1998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생활폐기물은 2000년 대비 4.4%가 증가한 48,499톤/일(1인당 하루 1.01kg)이 발생하여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며, 사업장폐기물은 2000년 대비 13%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폐기물 발생량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건설경기가 살아나<sup>1)</sup> 재건축과 재개발이 활성화되면서 2000년 대비 37.8%가 증가한 108,520톤/일의 건설폐기물이 발생하여 지금까지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사업장일반 폐기물을 처음으로 초과하였다.



1) 2001년도 건설수주액은 전년 대비 144%증가(통계청 자료)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있어서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모두 재활용과 소각처리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매립율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생활폐기물의 경우, 쓰레기종량제에 따라 분리수거가 활성화되어 재활용율이 크게 향상되고(1996년 26.2% → 2001년 43.1%) 소각처리율 또한 5.5%에서 13.6%로 상승한 반면, 매립율은 1996년의 68.3%에서 2001년 43.3%로 낮아졌다.

사업장폐기물은 대체로 각각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성상에 큰 변화가 없고 배출량 예측이 가능하며 어떤 사업장에서는 불필요한 폐기물이라도 다른 사업장에서는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에 비해 재활용율이 매우 높다(74.8%).

〈폐기물의 처리방법〉

구 분	생활폐기물	사업장일반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재활용	43%	65%	86%	51%
소 각	14%	8%	2%	23%
매 립	43%	19%	12%	12%
해양투기	-	8%	-	3%
기 타	-	-	-	11%

## II. 폐기물 관리정책 추진방향

### 1.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체계 확립

환경부에서는 앞으로 폐기물정책의 우선순위를 첫째,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 둘째, '재이용, 재활용, 에너지 회수', 셋째, '발생된 폐기물의 안전처리'에 두는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한다. 즉,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을 도모하는 한편, 2002년부터 2011년까지의 폐기물관리 정책방향을 담아 2002년 3월에 확정된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에 의거, 앞으로 10년간의 폐기물관리 정책목표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경제사회기반 확립'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폐기

물 최소화정책의 지속 추진', '폐기물 자원화정책 강화', '폐기물의 안전처리 및 관리강화'를 정책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2. 장기 폐기물 관리목표

52,743톤/일로 예상되는 2011년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12% 줄이고 매립 또는 소각처리해야 할 폐기물은 2000년의 27,271톤/일보다 20% 적은 21,817톤까지 감축하며, 재활용기반시설의 확충과 재활용기술 개발 및 재활용산업 육성 등에 총 1조 3,000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재활용율을 2011년까지 53%로 높일 계획이다.

생활폐기물의 소각처리율을 30%로 높이기 위해 약 1조 1,000억원을 시설확충에 투자하고 매립은 17% 수준까지 낮추어 나가며, 사업장폐기물은 예상 발생량의 8%를 줄이는 동시에 재활용율은 80%로 높일 계획이다.

〈생활폐기물 관리목표〉 (단위 : 톤/일)

구 분	'00(실적)	'05	'08	'11
감량후 발생량 (일인당 발생량)	46,438 (0.98kg)	47,705 (0.97kg)	47,164 (0.94kg)	46,414 (0.91kg)
재활용량 (목표율)	19,167 (41.3%)	21,944 (46.0%)	23,582 (50.0%)	24,597 (53.0%)
처분대상 양	27,271	25,761	23,582	21,817
소각량(목표율)	5,440(11.7%)	10,972(23.0%)	13,206(28.0%)	13,924(30.0%)
매립량(목표율)	21,831(47.0%)	14,789(31.0%)	10,376(22.0%)	7,893(17.0%)

〈사업장폐기물 관리목표〉 (단위 : 톤/일)

구 분	'00(실적)	'05	'08	'11
감량후 발생량	187,844	271,930	297,690	327,900
재활용량 (목표율)	138,035 (73.5%)	208,570 (76.7%)	233,984 (78.6%)	262,320 (80.0%)
처분대상 양	49,809	63,360	63,706	65,580
소각량(목표율)	11,757(6.3%)	18,763(6.9%)	22,327(7.5%)	25,576(7.8%)
매립량(목표율)	29,904(15.9%)	33,719(12.4%)	30,960(10.4%)	30,167(9.2%)
해양배출 및 기타	8,148(4.3%)	10,878(4.0%)	10,419(3.5%)	9,837(3.0%)

### III. 2003년도 폐기물정책 추진계획

#### 1. 폐기물 감량화정책의 지속적 추진 및 자율실천 확산

##### 가. 1회용품 사용규제정책 확대 및 정착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백화점 등 43개 대형 유통업체로 하여금 1회용 쇼핑백의 가격을 20원에서 50원으로 올리고 판매수익금은 장바구니 이용고객에게 할인혜택을 주거나 환경보전활동에 지원하는 등의 자율실천선언(2002.5월)을 하도록 유도하여 작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100평 이상 패스트푸드점과 50평 이상 테이크아웃점 내에서는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으며 모든 패스트푸드점과 테이크아웃점에서 외부로 반출되는 1회용컵에 보증금환불제를 실시하는 내용의 자발적협약을 29개 관련업체와 체결하여(2002.10월)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재활용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무상제공 금지의무에서 제외되어 있던 약국과 서점을 대상사업장에 포함시키고, 공연장·운동경기장에서 1회용 응원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며,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안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의 1회용 합성수지용기와 음식점의 비닐식탁보 사용을 금지하였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금년 7월부터 시행되며, 관련법령 위반자는 지금까지와 달리 위반행위 적발 즉시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sup>2)</sup>

금년에는 자율실천선언과 자발적협약이 당초 의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민간단체와 함께 업계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국민 홍보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1회용 도시락용기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생분해성 합성수지 재질기준을 고시하는 등 지금까지 마련

한 1회용품 관련 제도를 실효성 있게 시행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나. 쓰레기증량제의 개선과 보완을 통한 폐기물 감량화 추진

1995년부터 '쓰레기증량제'를 시행한 결과, 매립 또는 소각처리해야 하는 폐기물이 43.9% 감소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량은 134.4%가 증가(1994년 대비 2001년 실적)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한편으로는 종량제봉투의 재질·강도 등에 대한 불만, 농어촌지역에서의 노천소각행위 증가, 대형폐기물 배출수단의 제약 등 시행상의 문제점이 일부 도출됨에 따라 농어촌지역에 '마을단위종량제' 도입, 종량제봉투의 규격 강화 등 종량제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작년부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연간 약 150억장이 사용되는 1회용 비닐봉투를 줄이기 위해 유통매장과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1회용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sup>3)</sup>를 판매토록 하고 불가피하게 사용된 비닐봉투를 재활용품으로 분리수거하여 재활용하도록 하여 작년 12월까지 198개 자치단체에서 704만매의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 전국 2,718개의 유통매장과 46,944개 봉투판매소에서 판매하였고 상당수의 자치단체에서 비닐봉투를 분리수거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등 청소대행 독립채산제 실시지역의 경우 청소대행업체별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배분문제로 인해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제작과 보급이 지연되고 있고, 관할구역 내의 전 지역에 비닐봉투 분리수거제를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전체의 64%인 149개소에 그치고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따라서 금년에는 대형 유통업체(58개 백화점·대형할인점)의 모든 매장에서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서울시 등 대도시 지역에서의 확대실시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며, 비닐봉투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실행

2) 이전에는 법령 위반자에게 이행명령을 먼저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규제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2003년부터는 위반행위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2002.2월에 재활용촉진법을 개정하였음.

3) 매장에서 구입한 물건을 담은 봉투로 1차 사용하고 가정에서는 쓰레기봉투로 제작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디자인과 색상을 새롭게 하여 제작한 종량제봉투

조사를 연중 실시하는 한편, 자치단체의 비닐봉투 압축기 구입비를 국고보조(대당 4,500만원)하여 재활용기반을 조기에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종량제봉투를 생분해성 재질<sup>4)</sup>로 제작·보급하기 위해 상반기 중 분해성봉투의 단체표준 규격을 제정하고 하반기에는 분해성봉투의 도입을 확대하기 위한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을 개정하며, 분해성봉투에 배출되는 쓰레기의 경우는 폐기물처리비를 낮추어 줌으로써 기존 종량제봉투 가격과 차이가 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자원화 추진**

우리나라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생활폐기물의 23.2%인 11,237톤/일로서 그 경제적 가치가 연간 14조 7천억원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2005년부터는 특별시·광역시·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곧바로 매립처리할 수 없게 된다.

〈음식물쓰레기 발생 현황〉

(단위 : 톤/일)

구분	생활폐기물 발생량	음식물쓰레기 발생량(톤/일)	1인당 1일 발생량(kg)	생활폐기물중 점유율(%)
'95	47,774	15,075	0.34	31.6
'96	49,925	14,532	0.33	29.1
'97	47,895	13,063	0.29	27.3
'98	44,583	11,798	0.25	26.5
'99	45,614	11,577	0.25	25.4
'00	46,438	11,434	0.24	24.6
'01	48,499	11,237	0.23	23.2

환경부에서는 앞으로도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식생활문화 개선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작년에 월드컵 개최도시 내의 75개 자치단체에서 반찬 가짓수 제한, 소형 찬기 사용,

남은 음식 싸주기 등을 통해 지금과 같은 낭비적인 음식 제공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자발적협약'을 자치단체와 음식업단체·시민단체간에 체결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실질적으로 5.5%를 줄이는 성과<sup>5)</sup>를 거두었는 바, 금년에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작년 2월에 여성단체·시민단체 및 음식업단체 등과 공동으로 선포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생활실천수칙'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민간단체에 국고를 지원할 계획이며, '음식물쓰레기 없는 날' 설정 등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아울러 사료화와 퇴비화 외에 다양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방안을 모색하고 자원화제품의 수요 확대에 주력하고자 한다.

**2. 폐기물 자원화체계의 정비**

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원활한 시행 및 정착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란 제품과 포장재의 생산자와 수입자에게 재활용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재활용의 활성화는 물론, 생산자로 하여금 재활용의무를 이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품의 설계·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쉬운 친환경적 소재를 선택하거나 제품의 구조를 개선하도록 유인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

금년에는 우선 종이팩·금속캔·유리병·PET병·합성수지재질 포장재(라면봉지와 같은 필름류 포장재 제외)·전자제품의 스티로폼 완충재·전지류·타이어·윤활유·전자제품 등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2004년에 필름류 포장재와 형광등, 2005년부터 이동전화단말기와 오디오가 추가된다.

필름류 포장재에 대한 EPR 시행에 대비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수도권과 영·호남권 등 3개 권역

4) 호기성 퇴비화 조건하에서 분해되는 재질로서 45일간 표준물질의 분해가 70% 이상인 것으로, '02. 10월에 '퇴비화조건에서의 플라스틱 생분해도 측정방법'을 KS규격으로 제정

5) 자발적협약 개최도시의 2002년 3/4분기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001년 3/4분기 대비 2.6%가 감소하였고, 자발적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지역으 발생량은 2.9%가 증가

별로 지자체가 수거한 플라스틱 종말품의 고품연료화(RDF)와 유화(油化)사업을 추진하고 플라스틱 연료화제품의 품질·규격기준,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한 후, 생산된 재활용제품을 시멘트 소성로와 발전소의 연료, 비닐하우스나 양어장 등의 난방연료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산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형광등의 경우에는 수도권에 2천만개/년, 영·호남에 각각 1천만개/년 등 연간 총 4천만개의 폐형광등을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시설을 금년 내에 설치토록 하되, 이에 필요한 형광등 재활용기계 구입비 83억원을 '한국형광등재활용협회'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자제품 리사이클링센터(경기도 용인)와 유리 재활용공장(충남 연기)을 각각 5월과 6월에 준공하고, 2005년부터 EPR 품목에 포함될 폐휴대폰 생산자책임재활용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국세청과 보건복지부로부터 환경부로 이관되어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빈용기(공병)보증금제'를 차질 없이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

### 나. 농촌폐비닐 수거체계 개선 및 처리방법 다양화

농업용 비닐은 연간 약 238천톤이 사용되고 있는데, 2001년의 경우 한국자원재생공장에서 96천톤, 민간에서 25천톤 등 121천톤 정도만 수거되고 나머지는 방치되거나 무단 소각되고 있는 실정으로, 환경부에서는 농촌폐비닐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거·운반하기 위해 작년 8월에 '이장책임수거보상제'를 마련하여 자치단체에 시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년부터 마을집하장과 읍·면집하장까지는 각각 이장과 자치단체 책임하에 폐비닐을 수거·운반하고, 읍·면 집하장에 모아진 폐비닐은 재생공사가 수거해 가는 체계를 운영하며,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거보상비(50원/kg) 지급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보상금액도 올리도록 자치단체를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폐비닐 수거·운반용 소형집게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에 구입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978백만원)하는 한편, 폐비닐을 고품연료화(RDF)하여 시멘트킬른이나 철강사 코렉스로 등의 연료나 인공어초의 원료로 사용하는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도시재개발과 재건축의 증가에 따라 발생량이 늘어나고 있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율은 다른 종류의 폐기물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나(85.8%) 대부분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성토재와 토지개량재 등 단순한 용도에 이용되고 있고 건설현장에서 재생골재 사용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환경부에서는 재생골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고 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금년부터 재생골재 사용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남양주시 진건하수처리장 진입도로와 고양시 원능하수처리장 차집관거,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에 재생골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안전성검증과 재생골재의 품질기준·품질검사 및 인증기관과 검사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재생골재 생산네트워크 프로그램을 개발·활용하며, 재활용단지 조성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 3. 사업장폐기물 관리체계 개선

1998년 IMF 경제위기 상황에서 폐기물처리업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사업장폐기물이 제때에 처리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체로 하여금 위탁받은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조치<sup>6)</sup>를 취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1999.2)하여 운영하고 있다. 금년에는 이러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제도를 폐기물처리업체뿐 아니라 재활용신고업체로까지 확대하고 이행보증제도 가

6)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의 분담금 납부,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 가입,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의 예치 중 1가지를 선택

새 가 족

협회 회원 가입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협회는 여러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 시기를 현행(처리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보다 앞당기도록 하는 등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며,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를 개정·고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입증하기 위해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던 것을 인터넷을 이용해서 실시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 적법처리입증 정보시스템'을 2001년 9월에 구축하여 지정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금년에는 이를 보완하여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해야 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시스템 적용대상 사업장을 확대·운영하고, 폐기물운반차량에 위치추적시스템(GPS)을 적용하기 위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장기적으로 유·무선 통합운영체계를 함께 운영하고자 한다.

또한, 지정폐기물의 일종인 감염성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인복지시설·사단급 이상 군부대·교도소·소년원·기업체 등의 의무실을 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에 포함시키고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의 규격화·다양화·재질개선, 용기에 대한 검사기준과 시험방법 등을 강화하며, 도서지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소각시설과 관련하여서는 소각시설 주변지역의 환경중 다이옥신 잔류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각시설을 파악하고 하반기에는 선정된 시설에 대해 다이옥신 실태와 주민건강 등을 조사한 후, 다이옥신으로 인한 피해가 확인될 경우 정밀역학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중·소형 폐기물소각시설의 운영관리 실태조사와 다이옥신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특성 조사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소형 소각시설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소각재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설치가 금지되는 소각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소형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설정하는 등 소각시설을 보다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b>한국생명공학연구원</b>	원 장	대전 유성구 어은동 52
<b>인천시 지하철공사</b>	임석봉	인천 계양구 굴현동 451
<b>대구지하철공사 열배기지사업소</b>	윤진태	대구 달서구 유전동 342
<b>세원산업</b>	장근태	충남 천안시 성환읍 성월리 259
<b>미성브라이트</b>	대 표	충남 천안시 풍서면 보성리 342-9
<b>(주)혜인</b>	원경희	충남 천안시 차암동 46 제2공단 2-1
<b>오천농협 액젓기공공장</b>	조정주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448-1
<b>경진정밀(주)</b>	이일용	충남 천안시 성환읍 안공리 294-2
<b>(주)광진기업</b>	김병현	충남 예산군 삽교읍 이리 478-3
<b>호성산업개발(주)</b>	최용준	충남 천안시 임정면 신두리 111-13
<b>희천산업(주)</b>	문상섭	충남 천안시 동면 화덕리 105-10
<b>금산고려인삼공사</b>	대 표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53-5
<b>(주)상경</b>	박경준	충남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881
<b>(주)보림</b>	박광호	충남 천안시 성환읍 도하리 518-3
<b>(주)디아이디</b>	이낙황	충남 천안시 백석동 739
<b>상영산업(주)</b>	이수일	충남 천안시 직산읍 마정리 227-14
<b>(주)펠렉</b>	대 표	충남 아산시 인주면 관암리 423-5
<b>경중산업(주)</b>	이태규	충남 보령시 청리면 황룡리 산1-3
<b>(주)한별</b>	임인철	충남 천안시 수신면 발산리 368-1
<b>둔포농협협동조합</b>	조합장	충남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411-2
<b>(주)에디퍼니처</b>	박석우	충남 서산시 운산면 수령리 19
<b>오성수지</b>	오성철	충남 천안시 성환읍 성화리 172
<b>전천후지동차정비공장</b>	전규철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5-14
<b>(주)세우산업</b>	경영봉	충남 천안시 수신면 장산리 719
<b>대양기(주)</b>	김병열	충남 공주시 장기면 동천리 482
<b>고대농협마곡처리장</b>	조합장	충남 당진군 고대면 진관리 517
<b>(주)롯데백화</b>	김영식	충남 천안시 두정동 58-12
<b>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b>	강덕영	충남 연기군 진동면 노장리 404-10
<b>(주)동부</b>	이순병	충남 당진군 송악면 중흥리 362-8
<b>천지기업</b>	조호준	충남 아산시 배방면 세교리 629-1
<b>(주)카파</b>	박선빈	충남 아산시 염치읍 쌍죽리 51-11
<b>대건정밀</b>	이미자	충남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339-11
<b>건설화성(주)</b>	최 정	충남 천안시 성환읍 대흥리 195-46
<b>금산인삼협동조합</b>	김영근	충남 금산군 부리면 선원리 38-3
<b>무산공업사</b>	손주환	대전 대덕구 대화동 462
<b>대성프라스틱(주)</b>	김성현	대전 동구 상소동 459
<b>광야종합식품</b>	최종백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232-1
<b>동아리플공업사</b>	이성기	대전 대덕구 판중동 82-4
<b>제일프라스틱</b>	홍오석	대전 대덕구 신일동 1696-8
<b>남광사무용가구</b>	김종태	대전 중구 호동 210-3
<b>유니온정유(주)</b>	권오관	대전 대덕구 판중동 148-1
<b>대전보훈병원</b>	배영재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220
<b>(주)레오케미칼</b>	장상표	대전 중구 어남동 43
<b>논산시 축산·분뇨위탁처리사업소</b>	소 장	충남 논산시 연무읍 신화리 51
<b>도모에공업(주)서울지점</b>	김동진	서울 중구 태평로1가 25
<b>(주)가스</b>	김동진	서울 강동구 성내동 440-1
<b>(주)동남반도체테크</b>	권태일	대구 북구 노원3가 1200-1
<b>(주)감장산업개발</b>	인기식	경북 상주시 공성면 산현리 35